

日증시, 美·이란 협상 기대에 상승 마감…닛케이 지수 2.43% ↑

등록 2026.04.14 16:13:45 | 수정 2026.04.14 18:52:24



[서울=뉴시스] 김예진 기자 = 14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.

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(닛케이평균주가)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74.62포인트(2.43%) 오른 5만 7877.39에 장을 마감했다.

JPX 닛케이 인덱스 4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6.00포인트(0.97%) 뚝 3만4007.82로 거래를 마쳤다. 토픽스(TOPIX)지수는 전장 대비 32.26포인트(0.87%) 상승한 3755.27에 시장을 마무리했다.

이날 시장에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했다. 이에 안도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섰다.

반도체 관련주인 아드반테스트, 소프트뱅크그룹(SBG) 등 닛케이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몰렸다. 닛케이 지수 선물에 대한 투기적 매수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.

다만 단기 과열 우려로 상승세가 주춤하기도 했다. 미쓰비시상사 등 상사주 일부는 하락했다. 소매업 등 내수주도 떨어졌다.

